



지난 4일(현지시간) 센트럴 오피스 다운타운 LA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에서 정현택 현대차그룹 전략기술본부 모빌리티사업실장(상위)이 모션랩의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셔틀 공유 등 다양한 실증사업 진행 국내서도 모빌리티 산업 발전 앞장

>> 1면 '현대차, LA서 미래...'서 계속

이에 LA시는 도시 교통체계 개선 협의체인 '어반 무브먼트 랩스(UML)'를 발족했다. 여기에는 LA시 산하 ▲LA 메트로 ▲LA교통국 등의 기관과 ▲미국 최대 이동통신업체 버라이즌 ▲미국 차량공유전문기업 리프트 ▲구글의 자율주행 전문 기업 웨이모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모션랩 설립을 통해 2020년부터 완성차 업체로는 처음 UML의 카셰어링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현대차그룹과 LA시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철학,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의 방향성 등과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 ◆미래 모빌리티 법인 '모션랩' 첫 번째 실증사업 '모션 카셰어'

모션랩은 카셰어링 사업뿐 아니라 국내에서 시범적용에 착수한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연계해 최종 목적지까지

LA 유니언 역 등 4개 역서 카셰어링 사용자 위치정보 기반 차량 정보확인 택시 요금에 비해 1/8수준으로 경제적

이용자들의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다중 모빌리티 서비스, 실시간 수요를 반영해 운행 경로상 다수의 목적지를 거칠 수 있는 셔틀 공유, 개인용 항공 이동수단(PAV)·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의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현대차그룹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움직임이다. 모션랩은 지난해 11월부터 LA의 '유니언 역'을 비롯한 4개 주요 역에서 모션 카셰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미국 현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모션 카셰어는 이미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카셰어링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사용이 편리하다.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으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가까운 곳에서 사용 가능한 공유 차량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 등과 비슷한 방식이다.

현재 모션랩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최초 서비스 가입비 12달러를 제외하고, 주행 시간에 따른 사용료(연료비 포함)는 시

간당 12달러이다.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하철·버스 요금은 약 7달러(대기시간 포함 약 2시간 소요), 택시나 우버 요금은 약 60달러 정도여서 가격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

2020년 3월부터 1분당 요금제가 적용되면 약 20분간 운행시 비용은 4달러가 전부다. 버스나 지하철 등 전통적 대중교통에 비해 시간은 1/3로 줄이면서도 비용은 비슷하고, 택시 요금에 비해서는 1/8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이다.

2015년 기준 ▲카투고 ▲잡카 ▲드라이브나우 등 약 16개 카셰어링 업체의 평균 이용료가 등록비 약 25달러, 편도 이용료 11~18달러, 왕복 이용료 약 53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모션 카셰어는 높은 비교 우위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션랩의 데이브 캘런 전략담당사무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범운영 개념으로 사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 중인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모션랩은 향후 ▲LA 시내 ▲한인타운 ▲힐리우드 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왕복 운영 방식에서 프리플로팅 방식으로 운영 형태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특히 차고지 확보 문제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미국 시장서 철수를 선언한 BMW의 드라이브나우와 카투고 등과 차별화를 선언했다. 모션랩은 LA시와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 통해 향후 카셰어링 시장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리플로팅 방식 운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미국 내 카셰어링 서비스 확대에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했다.

### ◆한국서도 혁신 모빌리티 사업 시동

현대차그룹은 최근 국내에서도 모빌리티 통합 관리 솔루션 기업 '모션'을 설립하고 국내 환경에 맞춰 렌터카 업체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도 시동을 걸었다.

국내에는 중소 규모의 수많은 렌터카 업체가 차량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의 규모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렌터카사들이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과 IoT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현대차그룹은 렌터카사의 운영 지원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로스 엔젤레스 (미국)·양성운 기자

# 주유상태·소요시간 확인은 기본 '프리플로팅'으로 자유롭게 주차

(유동형 편도)

## 르포

### '모션랩' 카셰어링 서비스

앱으로 지역서 이용가능 차량 확인  
3월까지 차량 100대 추가 확보방침  
다중 모빌리티 등 차후 사업군 확대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삶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정희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2017년 CES에 참석해 미래 모빌리티 개발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3년이 지난 현재 현대차그룹이 미국 LA에 실증사업 법인인 '모션랩'을 설립하고 최근 시작한 카셰어링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환경에 맞춰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한 계획도 뚜렷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LA의 중앙역으로 불리는 유니언역 주차장을 방문해 모션랩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체험했다. 모션랩은 현재 유니언역을 비롯해 웨스트레이크와 퍼싱, 7번가-메트로센터 등 LA 도심 주요 지하철역 인근 환승 주차장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환승 주차장을 들어서자 현대차의 아이오닉 PHEV가 반갑게 맞아줬다. 현재 모션랩 앱은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현지 직원의 도움으로 서비스를 실행했다.

이용 방법은 단순했다. 앱을 실행하자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차량마다 주유 상태는 물론 이용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등록 절차를 끝내자 스마트폰으로 차량 잠금



4일(현지시간) 모션랩 직원이 앱을 이용해 차량을 설정하고 있다.

상태를 해지, 시동을 켤 수 있었다.

현재는 왕복 방식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글로벌 카셰어링 업체들과 차별화를 느낄 수 없었지만 오는 3월부터 프리플로팅 방식(LA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지역에 자유롭게 주차하는 개념)을 도입하면 운영 형태의 다양화는 물론 이용객들의 부담도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국내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와 비슷해 보이지만 완벽하게 차별화를 갖고 있다.

차량 운영도 현재 15대(아이오닉 PHEV)에서 오는 3월까지 아이오닉과 니로 HEV를 100대 가량 추가 확보하고 LA 시내에는 물론 한인타운, 할리우드까지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후

에도 꾸준히 차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모션랩 관계자는 "LA시는 물론 북미 다른 지역에서도 협업을 진행하지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며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 형태를 분석한 다음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션랩은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로보택시, 셔틀공유, 다중 모빌리티(대중교통과 카셰어링을 결합해 사용자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플랫폼)는 물론, 비행자동차를 활용한 도심 항공모빌리티(UAM)까지 사업군을 점차 넓힐 방침이다.

/로스 엔젤레스 (미국)·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AI, 초등부터 성인까지 단계별로 맞춤 교육"

### 교육부 상반기 'AI 교육 기본계획' 신설 AI 시대 기본 소양·윤리·가치관 마련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정부가 처음으로 초등학교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AI 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한 상반기 중 만듭기로 했다.

AI 활용 교육 확대가 예고되면서 AI 인재 공급과 수요 균형 맞추거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이 과제도 떠오르고 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 'AI 교육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AI를 어떻게 가르칠지를 담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 교육 기본계획에는 초등학교생부터 성인 대상 평생교육까지 교육단계별로 어떤 AI 교육을 할지 등의 중장기 비전이 담길 예정이다.

초등학교에서는 AI와 친숙해지는 데 교육의 주안점을 두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AI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하며, 대학에서는 AI 기술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 큰 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잘 활용하도록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의 AI 교육 기본계획은 이러한 국가전략의 연장선상에서 AI 교육 강화와 인재양성 계획은 물론 AI 시대를 살아갈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과 윤리·가치관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육대학원에 'AI 융합 교육과정'을 개설해 2024년까지 AI 전문교사 5000명을 양성하고, 'AI 융합과정 운영 고교'도 34곳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 AI 전문교사 양성 인원에 자체 인원을 더해 5년간 800~1000명 양성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어도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초등학교 6곳에서는 AI를 활용한 영어연습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성화고 10곳은 'AI고'나 '빅데이터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AI 교육과 인재 양성이 활발해지면 AI 인재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것과 개인정보침해 문제 등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AI고'나 '빅데이터고'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AI 인재 등을 고교단계에서 키워내기 힘들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AI 활용 교육에 따른 학생의 정보가 빅데이터 형태로 축적되면서 학생의 목소리나 학습 정보 등 개인정보침해 가능성도 나온다.

/한용수 기자 hys@